

전체 목록으로 →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전자책자

주체 95 (2006)

우리 수령님은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신 인민의 위대한 아버지이시다.

김 정 일



태성리 할머니의 머느리 리옥상을 비롯한 농업부문간부들을 인솔하시고 대안시 농촌경리부문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주체68(1979). 9. 12]

우리 수령님은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이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신 인민의 위대한 아버지이시다.

김 정 일



전선을 찾으시어 인민군장병들을 보다 큰 위훈으로 불러일으키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1951. 4. 28)

우리 수령님은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신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시다.

김 정 일



남포항건설을 현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주체68(1979). 5. 14

1. 친아버이의 심정으로

주체49(1960)년 8월 2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흥남비료공장을 찾으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공장안의 작업현장들을 돌아보시기전에 주택지구와 공장종합식당에 먼저 들리시여 노동자들의 살림형편부터 보살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종합식당에 들리시여 방금 식사를 받아놓고 앉은 두 젊은 노동자를 보시자 곧바로 그리로 가시였다.

그들이 손가락을 놓고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자 수령님께서는 어서 앉아 식사를 하라고 하시며 《그래 식사가 어떨소?》라고 물으시고는 식탁우에 차려놓은 국이며 반찬그릇들을 찬찬히 보시였다.

그때까지 그들이 식사를 하지 않고 그냥 서있는것을 보시자 《국이 식는데 빨리 식사해야지.》라고 말씀하시며 세분판매점으로 발길을 옮기시였다.

이 판매점으로 말하면 아버지수령님께서 주체46(1957)년 3월에 오시여 노동자들의 식생활개선을 위하여 운영해보라고 하신 말씀을 받들고 차린 판매점이었다. 당시 그들은 바다를 끼고있으면서도 명란이나 창난 같은 좋은 반찬을 만들 생각을 못했었다. 그런데 수령님께서 다녀가신후 명란, 창란은 물론 갖가지 맛있는 반찬들을 노동자들이 구미에 맞게 먹을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도 수령님께서는 그래도 무엇인가 부족한것 같으시여 《그래 식사를 더 다양하게 할수는 없겠소? 한두가지 음식만 하지말고 다르게 말이요.》라고 말씀하시였다.

식당책임자가 수령님께 밥도 짓고 밀가루로는 칼국도 만들고 국수도 눌러서 요구하는대로 준다고 말씀드리자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게 아주 좋소. 그런데 국수는 찬물에만 말면 배탈이 날수 있는데 우동도 만들어서 더운물에 마는게 어떨것소. 빵에는 달콤한 속을 넣어서 입맛을 돋구고... 부식물도 그만하면 괜찮은데 내 보기엔 아직 기름이 적은것 같소. 적어.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두 로동자의 식탁우를 다시한번 눈여겨보시였다.

이어 수령님께서서는 배식구앞에 가시여 물기가 즐박한 배식대우에 두손을
짚으시더니 뿌연 뜰감이 나오는 취사장안을 살피시였다.

일군들이 수령님의 옷썩에 물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어쩌랴싶어 가슴을
조이는데 수령님께서서는 그런것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합숙식솔이 많은
이 식당에서는 취사장설비를 기계화하여 모든것을 원만히 갖추어야
하겠다고 상세히 말씀하시였다.

식당에서 나오신 수령님께서서는 부부주택을 보시려 2층으로 올라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3호실문에 손기척을 하시며 《들어갈만하오.》라고
하시자 집안에서는 《예, 들어오시오.》라는 대답이 천연스럽게 울려나왔다.
방문이 열리자 젊은 부부는 자기 집에 아버지수령님께서 찾아오신것이
꿈만같아 잠시 몸둘바를 몰라하다가 문간으로 가지런히 나와 인사를
드렸다.

인사를 받으신 수령님께서서는 마치 갓 시집보낸 막내딸네 집에 오신듯
신발을 벗고 허물없이 방안으로 들어가시였다.

방바닥도 골고루 짚어보고 벽에 걸린 사진들도 보신 수령님께서서는 그들
신혼부부를 몸가까이 부르시여 누비돏자리에 누기가 차지 않는가, 더운
밥을 먹는가, 심지어 빨래는 어떻게 하는가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물으시였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서는 돈을 허투루 쓰지말고 새 살림을 잘
꾸려야 한다고, 일하면서 공부하는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기술리론과
현장경험을 잘 배합하여 기술혁신의 앞장에 서야 한다고 친아버이의
심정으로 다정히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겨울난방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새집인데 아직
겨울을 나보지 않아서 춥겠는지 모르겠구만. 지배인동무, 난방대책을
철저히 해줘야겠소라고 강조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식당과 합숙을 돌아보신 다음 앞으로 식당을 더
알뜰히 꾸리고 로동자들에게 식사를 더 맛있게 하여 공급하여야 하겠다는
부탁을 남기시고 이곳을 떠나시였다.

2. 자애로운 품에 안으시고

<만세포전>

주체49(1960)년 8월 2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흥남비료공장을 찾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공장안의 작업현장들을 돌아보시기전에 주택지구와 공장종합식당에 먼저 들리시여 노동자들의 살림형편부터 보살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종합식당에 들리시여 방금 식사를 받아놓고 앉은 두 젊은 노동자를 보시자 곧바로 그리로 가시였다.

그들이 손가락을 놓고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자 수령님께서는 어서 앉아 식사를 하라고 하시며 《그래 식사가 어떨소?》라고 물으시고는 식탁우에 차려놓은 국이며 반찬그릇들을 찬찬히 보시였다.

그때까지 그들이 식사를 하지 않고 그냥 서있는것을 보시자 《국이 식는데 빨리 식사해야지.》라고 말씀하시며 세분판매점으로 발길을 옮기시였다.

이 판매점으로 말하면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46(1957)년 3월에 오시여 노동자들의 식생활개선을 위하여 운영해보라고 하신 말씀을 받들고 차린 판매점이었다. 당시 그들은 바다를 끼고있으면서도 명란이나 창난 같은 좋은 반찬을 만들 생각을 못했었다. 그런데 수령님께서 다녀가신후 명란, 창란은 물론 갖가지 맛있는 반찬들을 노동자들이 구미에 맞게 먹을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도 수령님께서는 그래도 무엇인가 부족한것 같으시여 《그래 식사를 더 다양하게 할수는 없겠소? 한두가지 음식만 하지말고 다르게 말이요.》라고 말씀하시였다.

식당책임자가 수령님께 밥도 짓고 밀가루로는 칼국도 만들고 국수도
눌러서 요구하는대로 준다고 말씀드리자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게 아주 좋소. 그런데 국수는 찬물에만 말면 배탈이 날수 있는데 우동도
만들어서 더운물에 마는게 어떨겠소. 빵에는 달콤한 속을 넣어서 입맛을
돋우고... 부식물도 그만하면 괜찮은데 내 보기엔 아직 기름이 적은것 같소.
적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두 로동자의 식탁우를 다시한번 눈여겨보시였다.

이어 수령님께서는 배식구앞에 가시여 물기가 즐벅한 배식대우에 두손을
짚으시더니 뿌연 뜰김이 나오는 취사장안을 살피시였다.

일군들이 수령님의 옷썩에 물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어쩌랴싶어 가슴을
조이는데 수령님께서는 그런것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합숙식솔이 많은
이 식당에서는 취사장설비를 기계화하여 모든것을 원만히 갖추어야
하겠다고 상세히 말씀하시였다.

식당에서 나오신 수령님께서는 부부주택을 보시려 2층으로 올라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3호실문에 손기척을 하시며 《들어갈만하오.》라고
하시자 집안에서는 《예, 들어오시오.》라는 대답이 천연스럽게 울려나왔다.
방문이 열리자 젊은 부부는 자기 집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오신것이
꿈만같아 잠시 몸둘바를 몰라하다가 문간으로 가지런히 나와 인사를
드렸다.

인사를 받으신 수령님께서는 마치 갓 시집보낸 막내딸네 집에 오신듯
신발을 벗고 허물없이 방안으로 들어가시였다.

방바닥도 골고루 짚어보고 벽에 걸린 사진틀도 보신 수령님께서는 그들
신혼부부를 몸가까이 부르시여 누비돏자리에 누기가 차지 않는가, 더운
밥을 먹는가, 심지어 빨래는 어떻게 하는가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물으시였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는 돈을 허투루 쓰지말고 새 살림을 잘
꾸려야 한다고, 일하면서 공부하는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기술리론과
현장경험을 잘 배합하여 기술혁신의 앞장에 서야 한다고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다정히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겨울난방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새집인데 아직 겨울을 나보지 않아서 춥겠는지 모르겠구만. 지배인동무, 난방대책을 철저히 해줘야겠소라고 강조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식당과 합숙을 돌아보신 다음 앞으로 식당을 더 알뜰히 꾸리고 로동자들에게 식사를 더 맛있게 하여 공급하여야 하겠다는 부탁을 남기시고 이곳을 떠나시였다.

3. 최고사령관의 털모자를 쓴 보초병

주체39(1950)년 겨울 어느날 저녁 보초병은 전선시찰을 마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고사령부로 돌아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뽕안 눈보라속을 살피며 긴장하게 근무를 서고있었다.

얼마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눈보라를 헤치며 초소를 향해 달려왔다.

보초병은 힘있게 《영접들어 총!》을 하며 경례를 드리였다.

그런데 지나칠줄 알았던 승용차가 멈춰서더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눈길에 내려서시는것이 아닌가.

수령님께서서는 보초병에게 다가서시여 다정하게 물으시는것이였다.

《날씨가 찬데 춥지 않습니까?》

《최고사령관동지, 춥지 않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런 날씨에는 보초를 서기가 빠르할것이라고, 이런 추운 날씨에 털모자도 쓰지 못하고 근무를 서자니 얼마나 귀가 시리겠는가고 하시며 마음을 놓지 못하시였다.

보초병의 손을 감싸주시고 몰아치는 눈보라를 막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득 부관에게 이르시였다.

《차에 있는 나의 털모자와 장갑을 가져오시오.》

이윽하여 부관이 가져다올리는 털모자와 장갑을 받으신 수령님께서는
털모자를 보초병에게 내미시며 《보초병동무, 쓰고있는 모자를 벗고 이
모자를 쓰시오.》라고 말씀하시였다.

보초병은 황송함을 금치 못해하며 자세를 바로하고 기운차게 말씀올렸다.
《최고사령관동지, 저는 일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심정을 헤아려보신듯 환히 웃으시며
그러지말고 어서 모자를 써보라고 거듭 말씀하시며 손수 그가 쓴 모자를
벗기시고 친히 털모자를 씌워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모자가 좀 크지만 뒤를
조여쓰면 일없겠다고 하시면서 귀덮개를 내려주시고 끈까지
매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어 《이 장갑도 끼시오. 그러면 춥지 않을것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초병의 손에서 그가 끼고있던 장갑을 벗기시고 자신의
장갑을 손수 끼워주시였다.

《최고사령관동지!》

보초병은 목이 메여 말을 잇지 못하였다.

그 얼마후 교대근무인원들을 데리고나왔던 보초장은 깜짝 놀라 웨쳤다.
《동무가 쓰고있는 모자가 최고사령관동지의 모자가 아니요?》

...

4. 노동자를 위하시는 마음

주체36(1947)년 12월 3일에 있는 일이다.

이날은 우리 노동계급이 일제가 패망하면서 우리 나라 공업의 명맥을 끊어버리려고 황해제철소와 김책제철소의 용광로들을 죄다 파괴하고 그것을 복구하자면 10년은 실히 걸려야 한다고 떠벌렸던것을 단 2년동안에 복구하고 조업식을 거행한 날이다.

바로 이 영광스러운 첫 조업식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참석하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용광로를 복구한 기쁨을 안고 삼단 같은 불길을 맞받아 날쌔게 점토포(출선구를 막기 위한 기구)를 밀고들어가는 출선공들의 작업모습을 보시고 여간만 걱정하지 않으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출선구점토포를 언제나 사람이 밀고들어가는 방법으로 막는가고 걱정어린 안색으로 물으시였다.

일제때부터 그렇게 한다는 대답을 들으신 수령님께서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심각한 어조로 《그럴테지.》라고 하시며 출선공들을 유심히 살피시다가 한 로동자를 부르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일제때 입은 화상투성이인 그의 두손을 쥐시고 한참이나 들여다보시고 천천히 그를 돌려세워 목뒤에 난 화상자리를 어루만지시며 몹시 가슴아파하시었다.

순간 그는 학대와 굴욕속에서 살아온 지난날의 참상이 떠올랐다. 화상을 당하여 쓰러지면 약대신 매질을 하면서 목숨이 붙어있는한 쇠를 뽑으라고 포악스럽게 달려들던 일제놈들, 그놈들의 발길아래 얼마나 많은 우리 로동자들이 인간이하의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던가.

그런데 지금 지난날 마소처럼 혹사당하면서 생긴 상처를 어버이수령님께서 따뜻이 어루만져주시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점토평작업을 기계화해야겠다고, 그래야 동무들이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될수 있고 높은 로동생산능률을 보장할수 있다고, 일본놈들은 로동자들을 착취할 궁리나 했지 로동자들이야 힘들어하건 죽건 조금도 상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에도 그를 잊지 않으시고 따뜻한 어버이사랑을 부어주시었다.

주체48(1959)년 봄 김책제철소를 찾으시고 로동자들의 예술공연을 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좌석을 둘러보시다가 용광로복구를 위해 이곳에 온 그를 알아보시고 손짓하여 부르시는것이 아닌가. 한갓 로동자에 불과한 자기를 찾는 수령님의 천만뜻밖의 부르심에 그는 몸둘바를 몰랐고 관람자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얼굴은 막 뜨거워났다.

수령님께서서는 그를 다정하게 자신의 곁에 앉혀주시고 가정형편에 대하여 세세히 알아보시었다. 지어 아이들의 학년과 성적에 대해서까지 물으시고 모두 대학에까지 보내서 훌륭한 인재로 키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자면 우선 아버지부터 모범적으로 공부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지난날 배우지 못한 멧힌 한도 헤아려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를 한참동안 유심히 살피시다가 몸이 아주 허약해졌다고 걱정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그는 《괜찮습니다. 요새 용광로조업식준비를 하느라고 좀 피곤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힘차게 대답했다.

그러자 수령님께서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띄우시며 말씀하시였다.

《동무의 얼굴은 정직하게 말하고있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몸은 허약해졌습니다하고 말이지.》

그는 가난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17살 때부터 로동판에서 일하면서 매를 맞고 불에 데고 끼니를 굶으면서 차디찬 랭돌방에서 기나긴 겨울밤을 보냈지만 언제 어느 누구도 자기의 건강에 대해 이와 같이 따뜻한 관심을 돌리는것을 본적이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7(1958)년 신년연회때에도 그의 잔에 술을 가득 부어주시다음 자신의 잔을 높이 드시면서 우렁하신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새해의 건강을 축하하오, 자 들자고 말씀하시였다.

술잔을 든 그의 손은 조용히 떨리기 시작했고 떠들떠들 수령님의 건강을 축원하는 인사를 올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한 노동자의 건강을 위하여, 아니 전체 로동계급의 건강을 축원하여 손수 부어주신 술을 그는 달게 마셨다.

그의 온 몸에는 로동계급을 것처럼 내세워주시고 따듯이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두려운것도 무서운것도 없고 아무리 일해도 힘들것 같지 않는 무한한 금지와 힘이 용솟음치고있었다.

5. 한 집안 식구처럼

주체45(1956)년 1월 15일 아침 9시경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원화협동농장을 찾으시였다.

수수한 겨울옷차림을 하신 수령님께서서는 어느 한 농장원의 집에 들리시였다.

특별히 깔아놓았던 담요를 거두고 샷자리에 그냥 앉으신 수령님께서서는 좌중을 둘러보시며 담배를 꺼내어 맨앞에 앉은 늙은이로부터 권하시며 손수 성냥불까지 그어주시였다.

주인아주머니가 옷방문곁에 앉아있다는것을 아시고는 주인이 아래목에 앉으라고 권하기도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 아주머니의 생활형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남편이 전쟁시기 학살되였다는것과 혼자서 어린것들 셋을 데리고 산다는것을 아신 수령님께서서는 잠시 말씀이 없으시다가 힘들것 같으면 아들을 만경대혁명학원에 보내서 공부시키자고 말씀하시였다. 그후 아주머니는 행어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라일에 것처럼 바쁘신 수령님께서 조합의 한 평범한 자기 집 일에만까지 마음 쓰실 시간이 있으랴 싶어 감감 잊고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승용차 한대가 그의 집마당에 와서더니 차에서 내린 일군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아들을 만경대혁명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데려오라고 해서 왔다는것이였다.

아주머니는 감격에 북받쳐오르는 눈물을 하염없이 쏟으며 아들이 탄 승용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자리에 서서 바라왔다.

그러던 주체**48(1959)**년 정월 어느날 아들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학원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를 부르시여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며 집생각이 나지 않느냐, 식사는 많이 하느냐, 공부를 잘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과 수령님과 함께 사진도 찍었다는 내용이었다.

아주머니는 편지를 몇번이고 곱씹어가며 읽고 또 읽었다.

그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또다시 조합에 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자 그 아주머니를 찾으시고 일전에 학원에 갔었는데 아들이 밥도 잘 먹고 공부도 잘 하면서 잘 있더라는 것을 알려주시는것이 아닌가.

아주머니는 그만 가슴이 뭉클하고 목이 껍 메여 아무 말씀도 드릴 수 없었다.

이날도 수령님께서는 농장원들과 담화를 하시였는데 살아가는데서나 일하는데서 애로되는것이 있으면 다 말하라고 따뜻이 말씀하시였다.

어떤 농장원은 거름을 많이 생산했는데 운반하자니 수송문제가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고 어떤 제대군인은 겨울옷이 미처 마련되지 못한것도 말씀드렸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수첩에 일일이 다 적으시였다.

그런데 수령님께서 조합을 떠나신지 5시간쯤 지나서 감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민주선전실 마당에 차 한대가 와뒀었는데 거기에는 수령님께서 보내신 책들과 라디오 그리고 제대군인들에게 보내신 솜동복들이 가득 실려있는것이였다. 더욱 놀라운것은 《선진농업》이란 책을 펼치니 수령님께서 보시면서 그으신 붉은 연필자욱이 또릿또릿하게 남아있는것이였다.

참으로 우리 수령님은 온 나라 인민을 한집안식구처럼 여기시며 친아버지의 다심한 사랑으로 보살펴주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6. 특별식사

삼지연군과 보천군을 현지도하시느 길에 리명수물동에서 류벌공들이 금방 떼를 내릴 준비를 하고있는것을 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간이 늦어져도 수고하는 우리 류벌공들의 일손씨를 좀 보고가자고 하시며 걸음을 멈추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물길을 잡느라고 떼가이를 휘저으며 짚을대를 강바닥에 박고 육중한 떼꼬리를 잡아돌리는 류벌공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아주 대단합니다. 저 동무들이 아주 용감합니다.》라고 무척 대견해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떼를 따라 내려가면서 용감한 우리 류벌공들을 고무해주자고 하시며 흐르는 떼를 따라 내려가시다가 몇번이나 차를 멈추시고 류벌공들에게 손을 흔들어주시였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혜산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해방 18돐을 맞이하는 성대한 경축대회가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날 저녁에 있는 경축연회에 낮에 고무해주시던 한 류벌공을 불러주시고 손수 그에게 잔이 넘치도록 술을 부어주시였다.

술을 마실줄 모른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수령님께서서는 《벌사치고 술을 마시지 못하는 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하시며 담배도 피우라고 새 담배갑까지 터쳐주시었다.

류벌공은 《수령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술과 담배를 배우지 않으리라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라고 말씀드리며 해방전 가슴아픈 일들과 술과 담배를 배우지 않게 된 사연에 대하여 말씀드렸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아주 불쌍히 자랐구만!》하고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고생스럽게 살아온 지난날을 생각해서라도 오늘은 마음껏 들어야 내 마음도 편할게 아닌가고 하시며 자신께서 드셔야 할 음식들을 그의 앞으로 옮겨놓으시었다.

그 류벌공은 50평생에 단 한번도 대보지 못한 술이었지만 아버이수령님께서 부어주신 축배잔을 두손으로 받쳐들고 쪽 마시었다. 주체55(1966)년 조선로동당대표회를 며칠 앞둔 어느날 몸소 대표들이 든려관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가 인사도 드리기전에 그를 알아보시고 《압록강류벌영웅동무도 왔구만.》라고 하시며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었다.

그날 저녁 식사시간때였다.

그가 거의 식사를 끝낼 때였는데 접대원이 또 한상의 식사를 가져다놓는것이였다.

영문을 몰라하자 접대원은 《아바이, 어떻게 하든지 이 식사를 더 드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사연인즉 숙소를 돌아보고 일군들을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번 대표자들가운데는 량강도 압록강류벌사업소의 류벌영웅도 있는데 그 동무는 어려서부터 배를 곯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일생 류벌로 늙어온 동무라고 하시면서 기골이 장대한 그 동무만은 지금의 식사가 부족할수 있으니 대회전기간 특별히 보장해주라고 이르시였던것이다.

그리하여 그 류벌공은 대회전기간 특별식사를 하게 되였다

7. 어린이들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아동백화점이 매대마다 상품들을 가득 채워놓고 문을 열 준비를 하고있던 주체50(1961)년 11월 17일 이곳을 찾으시였다.

바로 두해전인 주체48(1959)년 4월, 한창 건설중인 모란봉청년공원을 현지지도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경치좋은 모란봉기슭에다 아동공원과 함께 아동백화점을 지어주어야겠다고 말씀하시였던것이다. 백화점에 들어서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1층매장을 둘러보고나시여 어린이놀이감매대로 걸음을 옮기시면서 동행한 일군에게 백화점의 난방시설이 잘되어있는가고 물으시며 어린이들의 상점이기때문에 다른 상점보다 난방시설이 더 좋아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놀이감승용차도 손수 동작시켜보시며 놀이감이라는것은 아이들의 사고력발전에 필요한것만큼 잘 만들어야 한다고, 놀이감의 가지수도 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어린이들의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상품들을 종합적으로 진렬한 선물매대에 이르시여 판매원에게 치솔 하나를 보자고 하시였다. 그것을 이모저모 살피시다가 치솔이 몇가지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런것밖에 없다는 대답을 들으신 수령님께서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이번 어머니대회에서도 어린이들의 치솔이 없다는것이 비판되였는데 아직도 만들지 않습니까?》라고 하시였다.

한 일군이 어린이치솔을 생산할 대책을 세웠다고 말씀드리자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렇게 만들수 있는것을 생산하지 않는것은 어린이들에 대한 관점이 바로 서지 않은데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사실 그때로 말하면 정전이 된지 8년이 되였다고는 하지만 재더미만 남았던 조건에서 누구도 아이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있었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러한 조건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상품을 따로 만들어주지 못하는것을 두고 가슴아파하시며 일군들에게 아이들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질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는것이였다.

당과류매대와 통줄임매대를 거쳐 필기도구매대에 이르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놓여있는 깍은 연필로 친히 종이우에 글까지 써보시며 질이 아직 높지 못하다고 지적하시고 만년필과 잉크도 하나하나 살펴보시였다. 잘 펴지지 않는 손칼을 보시고는 어린이들이 쓰기 편리하게 잘 만들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백화점은 어린이와 학생들을 대상하니만큼 내부를 항상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려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이 백화점이 학생들의 교양장소가 되게 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겠습니까.》라는 귀중한 말씀을 주시였다.

그후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평양아동백화점이 명실공히 어린이들을 위한 봉사기지, 교양기지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 할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8. 철도안내원이 받은 은정

주체50(1961)년 3월 중순 어느날 교통운수부문열성자대회에 몸소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촬영장에 나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가까이 서있는 혁신자들과 악수를 나누시며 누군가를 찾고계시였다.

뜻밖에도 어버이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처녀안내원은 북받쳐오르는 걱정을 누를길없어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다 자란 처녀가 울면 되나. 울지 말라구.》수령님께서는 머리며 어깨를 따뜻이 쓰다듬어주시였다.

어찌나 살뜰하고 다정히 대해주시는지 그는 그만 어버이수령님의 넓은 품에 얼굴을 묻고야 말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를 이끄시고 곁에 있는 일군에게 이 동무가 바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역 안내원으로 일하고있는 동무인데 역에 들어온지는 얼마 안되지만 애기어머니칸도 잘 꾸리고 기차에 오르내리는 늙은이들과 영예군인들도 잘 돌봐주면서 려객봉사사업을 잘하는 동무라고 소개하시였다. 특히 그전해 10월 어느날 하반신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한 영예군인을 도와 식사도 시키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준 사실을 자세히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를 자신의 곁에 더 가까이 세워주시고 나이는 몇살이며 언제 역에 들어왔는가, 고향은 어디며 부모들은 다 있는가고 하나하나 물으시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참 일을 잘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일을 더 잘하시오....

동무는 앞으로 평양역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평양역뿐만아니라 전체 교통운수부문에 동무의 사업경험을 일반화하여 다 봉사성이 높은 일군들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었다.

《아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꼭 일을 잘하여 평양역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알지 말고 일을 잘하여 인민의 총복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고무해주시었다.

인민을 위해 발휘한 소행을 두고 그리도 기뻐하시는 우리 수령님이시다.

기념촬영이 있는지 몇달이 지난 6월 초순 어느날, 전화로 철도수송실태를 료해하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해 기특한 일을 한 그 철도안내원을 잊지 않으시고 철도일군에게 말씀하시었다.

《평양역 안내원동무가 지금도 알지 않고 일을 잘합니까? 그 동무에게 나의 안부를 전해주시오. 그 동무를 앞으로 꼭 훌륭한 일군으로 키워야 하겠습니다.》

철도역안내원은 인민을 위하여 봉사한 소행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며 한량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아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전달받고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인민을 위해 더 좋은 일을 할 결의를 가다듬었다.

9. 인민들의 밥상도 친히 보시며

어느 한 집에서 점심때가 되어 온 식구가 집에 들어와 식사를 하고있었다. 이 집은 아이들이 많다나니 식사시간이면 언제나 분주하다. 이날도 아이들은 몹시 떠들어대고있었다.

그런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두서너번 나더니 《주인님 계십니까?》 하는 소리가 들리었다.

주인아주머니는 아무 생각없이 《예—누구시오. 들어오우다.》하고 미닫이를 열었다. 그런데 수수한 여름옷차림을 하신분이 웃는 얼굴로 들어오시는것이 아닌가.

어디선가 꼭 뵈온적있는 낯익은 얼굴인듯 다정하게 안겨왔지만 처음에는 너무 뜻밖이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고 인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모두 안녕들한가고 물으시면서 부엌살림을 눈여겨보시고 방안도 들여다보시였다.

《방안에 좀 올라가도 좋습니까?》

어서 올라오시라고 말씀드리자 수령님께서서는 식사하던참이라는것을 아시고 어서 앉아 식사를 마저 하라고 몇번이나 말씀하셨으나 주인은 그냥 서있는것이였다.

그러자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그의 손을 잡아 밥상곁에 앉혀주시고 자신께서도 그 옆에 앉으시였다.

《그래 잡수시는것이 어떻습니까. 좀 볼가요.》라고 하시면서 두리반에 급히 덮어놓은 신문지를 열어보시였다.

상우에는 밥그릇과 장그릇사이에 쌈을 싸먹던 부루짚이 여기저기 널려있었다. 아이들이 한창 먹고있던 밥상이니 오죽했겠는가.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런것에는 개의치 않으시고 상우에 차려놓은 그릇들의 음식을 하나하나 살펴보시였다. 그러시고는 《맛있게 해잡수십니다.》라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 음성이 어찌나 부드럽고 소탈하신지 녀인은 마치 친정아버지가 딸네집에 오시여 어떻게 살고있는가를 알아보시는것만 같았다.

《요새 나오는 장맛이 어떻습니까. 그만하면 달지요?》 계속되는 아버지수령님의 말씀에 녀인은 자기들이 먹는 장맛까지 알고계시는데 대하여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어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방바닥의 여기저기를 짚어보시며 구들에 불이 잘 드는가도 물어보시였다.

불이 잘 들어서 지난 겨울에는 추운줄 모르고 났다는 대답을 들으시고는 저르기 안심이 되시는듯 수령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옷장문도

열어보시고 개여놓은 이불의 솜두터이도 만져보시고 아이들의 책상도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우리 형편에 아직은 곤난한것이 왜 없겠는가. 그러나 앞으로 더 좋은 생활을 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 이야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46(1957)년 6월 11일 남포부양가족협동조합에서 일하던 어느 한 녀인의 가정에 들리시여 남기신것이다.

10. 보약을 보내주신 사연

주체55(1966)년 5월 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송림시를 현지도하시면서 제철중학교 학생들을 만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아이들은 정전직후에 난 아이들인데 약합니다. 그때 우리 생활이 좀 곤난하였으니 그 영향이 있는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매우 걱정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정전직후에 태어난 온 나라 어린이들 모두의 건강을 넘려하시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높일데 대하여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후 두달이 지난 7월 12일 아침이였다. 학부형들과 함께 학교에 오라는 연락을 받고 학교에 모인 학생들은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는데 이윽고 교장선생이 교단에 올라서더니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두달전에 송림시를 현지도하시면서 열한명의 학생들을 만나시여 뜨거운 육친의 사랑을 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번에 또다시 그들에게 인민들이 수령님의 건강을 축원하여 삼가 올린 귀중한 보약을 보내주셨다는것이였다.

한명씩 차례로 교단에 나가 빨간색바탕에 커다란 인상을 그린 선물함을 받아안은 학생들과 그것을 바라보는 교직원들과 학부형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에 감격의 눈물을 금치 못하였다.

한 학부형은 감격에 목이 메어 《어버이수령님! 수령님께서 드셔야 할 보약을 친히 보내주시다니... 이것이 웬 말입니까. 수령님! 천년이 간들 만년이 간들 이 은혜를 어떻게 잊을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며 눈물을 떨구었다.

정녕 세상에 평범한 근로자 자식들의 건강을 위해 자신께서 드셔야 할 보약을 보내준 령도자가 언제 있었으며 그냥 스쳐지날수도 있는 일을 잊지 않으시고 기어이 건강을 회복시키시려고 것처럼 마음을 쓴 수령을 언제 보았던가.

나라없던 지난날에는 길가의 조약돌처럼 버림받고 천대받던 노동자의 자식들에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따뜻한 사랑을 부어주시었다.

그후 그 학생들은 튼튼히 자라 대학을 졸업하고 새 세대를 키우는 교원으로, 인민의 건강을 책임진 의사로,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초소에서 일하는 역군이 되었다.

이것을 어찌 그 학생들에게만 차례진 행복이라 하겠는가.

해빛보다 따사로운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품속에서 사는 우리의 모든 청소년학생들이 받아안고있는 행복이다.

11. 부담을 주지 않으시려고

주체38(1949)년 10월 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강도를 현지지도하실 때 있는 일이다.

이때 이곳 일군들은 20성상 항일전의 마당에서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신 위대한 수령님을 현지지도의 길에서나마 잠시 편히 쉬시도록 해드리고싶은 마음에서 양지바른 성간면의 도롱굽이에 집 한채를 짓고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 뜨거워지는 일이지만 집이라야 서너칸짜리의 수수한 농촌살림집에 불과하였다.

이 사실을 아시게 된 수령님께서는 《내가 오면 왔지 왜 이 바쁜 때에 인민들을 동원시켜 길을 닦고 집을 짓습니까?》라고 하시며 일군들을 나무람하시였다.

일군들이 우리 인민의 간절한 소망을 말씀올렸으나 수령님께서는 오히려 《국가재산이자 인민의 재산인데 이렇게 랑비하여서야 되겠습니까.

국가재산에 손실을 주면 인민들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초가집을 보시며 앞으로 저런 집을 다 기와집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가 유격투쟁을 할 때에는 저런 초가집에 책상도 없어서 자그마한 밥상을 가져다놓고 일을 하다가 적들이 오면 싸우던 생각이 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날이 저물자 일군들은 현지지도를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날이 저물었는데 인제는 좀 쉬셔야 하겠습니다. 별하마을에 집을 마련하였으니 그리로 가십시오.》라고 말씀올렸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거기에 들면 인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열차에 모든 준비가 되어있으니 거기서 자겠습니다.》라고 하시며 여러날을 열차칸에 계시면서 곳곳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강계를 현지지도하기 위해 가시던 어느날 점심때에는 독로강가에 자리를 정하시고 몸소 호박을 삶아 식사를 하신적도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곡하면 흥주동사람들은 뜨거운 눈물을 머금으며 영명하신 장군님 덕분에 우리 농민들이 잘 살게 되었는데 어쩌면 이럴수 있는가고 하면서 마을에 오신 수령님께 당장 소를 잡아 대접하자고 서둘렀다.

하지만 저녁상우에는 소고기반찬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쌀과 부식물로 만든 간소한 찬거리와 마을농민들이 잡아온 몇마리의 물고기가 놓였을뿐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시 소 한마리를 사자면 4년동안 벌어야 하는데 내가 왔다고 소를 잡으면 또 4년 있어야 소를 살것이 아닌가고 하시며 절대로 잡아서는 안된다고 만류하셨기때문이었다.

12. 불비속에서 생겨난 지하시장

일시적인 전략적후퇴가 끝난지 두달밖에 되지 않던 주체40(1951)년 2월 초 어느날에 있는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미제공중비적들이 때없이 날아들어 무차별폭격을 하던 그때 자신의 안녕은 돌보지 않으시고 평양시민들의 생활형편을 알아보기 위해 몸소 사창장마당을 찾으시였다.

시장의 곳곳을 돌아보시며 상품류통에 대하여 자세히 료해하신 수령님께서서는 조그마한 화독우에 철판을 올려놓고 지짐을 지져 팔고있는 늙은 할머니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다가가시였다.

《할머니, 그것은 무슨 지짐입니까?》

파뿌리같이 흰 머리카락이며 추위를 피하여 웅송그리고 앉은 모습은 보기에도 처량하였다. 지짐판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할머니는 《녹두지짐이웨다.》라고 아무런 생각도 없는듯 대답했다.

수령님께서서는 부드럽게 또 물으시였다.

《그리고 또 무슨 지짐을 지집니까?》

할머니는 여전히 지짐판을 내려다보며 완두콩을 구하면 완두지짐을 지지고 녹두를 구하면 녹두지짐을 지지고 그저 낱알을 구하는대로 지지 판다고 대답하는것이였다.

《그것을 어디서 사옵니까? 그리고 돼지고기는 어디서 구해서 넣습니까?》

수령님께서 또다시 물으시였을 때에야 할머니는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그제서야 할머니는 자기에게 허리까지 굽히시고 물으시는분이

어버이수령님이시라는것을 알고 무릎을 꿇고 급히 일어서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할머니의 두손을 잡으시고 제자리에 앉혀주시며 장사를 하게 된 사연과 가정형편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할머니의 정상이 너무나도가궁하여 안색을

흐리신채 한동안 묵묵히 서계시다가 저으기 갈리신 음성으로 그것 참

안되였다고,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고,

그때에는 전선에 나갔던 아들들도 돌아와 잘 살게 될테니 너무 상심말라고

따뜻이 위로해주시고서야 자리를 뜨시였다.

집무실에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행했던 일군을 부르시여 《요즘

일부 일군들이 폭격이 심하다고 하면서 사창장과 가루개장을 없애버리고

시내로 모여드는 소개가족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하자고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실지 형편을 알아보려고 동무와 같이

시내를 돌아보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서는 《

지짐장사할머니를 보시오. 그 할머니는 아들형제를 인민군대에 다

내보내고 며느리까지 폭격에 잃다보니 부모없는 불쌍한 손자 셋을 기르기

위하여 하지 말라고 하는 장사를 할수 없이 한다고 하였는데 정말

솔직합니다. 우리가 이런 할머니를 도와주지 않고 천대해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절절히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금 폭격이 심하다고 하여 이미 있는 시장들을

없앨것이 아니라 시내의 여러 산밀에 굴을 파서 지하시장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인민들이 지하시장에서 마음놓고 필요한

상품을 팔고살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인류전쟁사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방대한 규모의

지하시장이 곳곳에 생겨나게 되였다.

13. 몸소 도리깨를 잡으시고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운동이 힘있게 추진되던 주체43(1954)년 11월 말 어느날 세창농업협동조합에서 있던 일이다.

이곳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먼저 파종한 가을밀을 보아주신 다음 마당질이 한창인 조합의 탈곡장을 찾으시였다.

탈곡장을 다 돌아보시고 콩마당질을 하는 곳에 이르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추운데 수고들 한다고 먼저 인사를 하시였다.

뜻밖에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게 된 조합원들은 저저마다 도리깨를 세워짚으며 수령님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답례를 보내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외투를 벗어 옆에 놓으시며 《나도 콩마당질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라고

말씀하시는것이 아닌가.

조합원들이 너무 황송하여 어쩔바를 몰라하는데 벌써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가까이세워놓은 도리깨 하나를 골라주시였다.

그제서야 일꾼들이 급히 달려와 만류하였으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풍년가을 마당질인데 한번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시면서 도리깨를 높이 드시여 공중에서 휘두르시였다. 그러자 도리깨열이 한바퀴 빙그르르 돌면서 바람을 일구었다.

도리깨가 이상이 없다는것을 확인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해봅시다.》라고 하시며 먼저 힘있게 내리치시였다.

도리깨열이 콩단에 맞을 때마다 오들오들 영근 콩알들이 튀어나와 마당을 누렇게 덮었다.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던 조합원들은 감동의 눈물을 머금고 맞도리깨질을 하였다.

참으로 위인의 고결한 품모를 후세에 전해주는 력사적인 화폭이었다.

이윽고 콩마당질을 다 끝내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도리깨를 놓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앞으로 조합에서는 탈곡장을 크게 만들고 기계로 탈곡해야 합니다.

그래야 로력도 덜 들고 이렇게 녀자들이 힘들게 도리깨질을 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땀을 씻으시며 조합관리일군들에게 그해 알곡과 현금 분배정형을 알아보시고 이듬해 농사차비를 잘 할데 대해서와 결산총화도 빨리 해줄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정력적이고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침내 주체47(1958)년 8월 것처럼 어렵고 복잡한 농업협동화가 완성되어 우리 농촌경리앞에는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휘황한 길이 열리게 되였다.

14. 소박한 식탁을 마주하시고

주체36(1947)년 9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함경북도를 현지도하시게 되였다.

일군들은 날씨가 좋은 가을철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단 하루라도 바다가에서 겹쌓인 피로를 푸시며 휴식하시기를 간절히 바랬다. 하지만

수령님께서서는 잠시의 휴식도 없이 도안의 여러 단위들을 돌아보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크나큰 로고를 바쳐가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이 념려되어 하루는 수행한 일군들이 바다가에서 낚시로 물고기를 몇마리 잡아다가 료리를 하고 검소한 밥상을 마련하였다. 이날도 여러 단위를 현지지도하고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오늘은 걸음을 많이 걸어서인지 배가 좀 출출하다고 하시며 인차 소박한 식탁에 마주앉으시었다.

상우에는 흰쌀에 기장쌀을 섞은 밥과 그들이 잡아온 물고기지지개, 남새볶음, 김치가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음식을 살펴보시다가 기장쌀밥이 아닌가고 하시며 《오늘은 물고기료리까지 올랐는데 웬일이요?》라고 물으시었다.

사연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머리를 가볍게 끄덕이시며 《나때문에 모두 수고가 많았군.》라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산에서 싸울 때 어쩌다 이런 물고기가 좀 생기면 정말 별맛으로 먹었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면서 산천어잡이를 하던 이야기를 들려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계속하여 나라가 해방되었으니 이제 인민들에게도 이런 물고기를 많이 공급해야 하겠다고 하시었다.

옆에 있던 일군이 음식이 식기전에 어서 드시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수령님께서서는 수저를 드실 념을 하지 않으시고 동무들이 먹는 밥을 한그릇 가져오라고 이르시었다.

가져온것은 고실고실한 좁쌀밥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신의 밥그릇을 옆으로 밀어놓으시고 그 자리에 노란 좁쌀밥그릇을 놓으시었다. 그리고 지진 물고기도 동무들이 맛보라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그 일군이 젓은 목소리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말씀올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나는 산에서 일본놈들과 싸울 때 늘 대원들과 음식을 똑같이 먹었습니다. 그들이 통강냉이를 삶아먹으면 나도 통강냉이를 먹었고 강낭죽을 쑤어먹으면 나도 강낭죽에 소금을 먹었습니다.

어느해 5.1절에 식량이 떨어져 대원들이 개구리를 잡아먹었는데 나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대원들이 산나물로 끼니를 에우면 나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대원들이 어찌다 색다른 음식이 생기면 나에게 가져오곤 하였는데 나는 그것을 한번도 들지 않고 어린 대원들과 앓는 사람들에게 돌려주곤 하였습니다.

한번은 군수관이 나를 찾아와 사령관동지의 식사를 남비 같은데 따로 해드려야 한다는 일치한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그러면 안된다고, 동무들이 남비에 내 식사만 따로 하면 단식을 하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끝내 기장쌀밥과 물고기반찬을 드시지 않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수행원들에게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이 지금보다 유족해진 다음 동무들의 성의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하시였다.

15. 공장을 한두개 못지어도

주체46(1957)년 1월 어느날 평양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지도밑에 이해 국가예산초안을 토의하는 내각회의가 열렸다.

당시 전쟁으로 인하여 령락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자금이 필요한 때여서 아침에 시작된 회의는 밤이 깊도록 계속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국가예산초안의 세부항목까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시다가 한 일군에게 재일동포자녀들에 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어느 부분에 넣었는가고 물으시였다.

재정형편이 너무 긴장하여 국가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림시외화계획에 넣으려 한다는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쓰라린 설음과 억눌림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민족의 뉘을 찾아 모대기는
해외동포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오래도록 아무 말씀이 없으시였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지막하나 힘있는 음성으로 아닙니다,
보내주어야 합니다, 당장 보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장을 한두개 못짓는
한이 있더라도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에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돈을
보내주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수령님께서서는 장학금을 한두번 보내주고 그만두어서는 안된다,
일본에 우리 동포가 있고 배워야 할 어린이가 있는 이상 계속 보내주어야
한다, 그렇기때문에 림시적인 사업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국가예산에 새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항목을 내오고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바로 이렇게 되어 국가예산에는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동서고금 그 어느 나라 재정금융력사에도 있어본적 없는
새로운 재정항목이 태어나게 되였다.

재일동포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그 은정이 너무도 고마워
나라에서 나라에서 돈을 보낼줄은
꿈결에도 꿈결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교육원조비 장학금의 많고 많은 귀한 돈을
바다너머 저멀리 조국에서 보내왔어요
...라며 목메여 노래부른다.

재일동포들은 언제나 그 어려운 때에 귀한 돈을 보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어버이사랑을 영원히 못잊어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꼭같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그때보다
더 엄혹한속에서도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으며 더 많은 돈을 보내주시려고 마음쓰신다.

16. 쥬기밥을 드시며

전쟁이 끝난 다음해 12월 어느날에 있는 일이다.

전쟁시기에도 그러했지만 이때에도 밤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일하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개성시를 향하여 평양을 떠나시였다.

도중에 식사시간이 되어 수행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길가의 어느 한집에라도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것을 보신 수령님께서서는 만류하시며 마을에 들어가면 인민들이 또 무엇을 준비하겠는데 차안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자고 하시였다.

가져온 식사를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왜 식사를 전날 자신께서 말한대로 하지 않았는가고 책망하시며 《전쟁을 겪고난 우리 인민들은 어렵게 생활하고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심식사도 못하고 아침 저녁 죽으로 끼니를 에우고있습니다.

나는 원래 색다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인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이때 밥을 먹는것만해도 과남한데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이것을 당장 가져가시오.》라고 말씀하시였다.

준비한 음식이라야 밥통에 넣은 밥과 삶은 닭알 한알, 그리고 절인 고등어반찬 두 토막과 콩나물 한접시가 전부였다.

일군이 이왕 준비한것이니 드셔야 한다고 절절히 간청드렸으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동무들이 정 그러면 점심식사를 건넌자고 하시는것이였다.

하는수 없어 일군은 수행원들이 먹으려고 했던 쥬기밥을 가져다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것을 받아드시더니 길을 떠날 때에는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고, 차안에서 먹기가 얼마나 간편한게 좋은가고 하시며 어서 식사를 하자고 하시였다.

순간 너무도 마음이 격해오른 일군은 자기도 모르게 《수령님, 너무하십니다.》라고 안타까이 말씀드렸다.

눈물이 글썽하여 못박힌듯 서있는 그에게 수령님께서는 따뜻한 음성으로 《이제 전후복구건설이 끝나고 인민들의 생활이 지금보다 나아지면 동무들이 준비한 음식을 무엇이든 다 들겠소.》라고 하시며 그를 달래시였다.

그러시고는 잘게 썬 염장무우속을 넣은 쥬기밥을 드시는것이였다.

아, 쥬기밥!

우리 수령님께서 어려운 때 드신 쥬기밥, 그 쥬기밥을 오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드시며 선군혁명령도의 장정을 이어가신다. 오로지 인민의 안녕과 보다 좋은 래일을 위하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하기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쪽잠에 쥬기밥을 더는 드시지 않게 하기 위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더 잘 받아들여갈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17. 사양하신 양말

가렬처절한 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0(1951)년 어느날 한 일군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으로부터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에 문건을 가져다주라는 임무를 받았다.

그곳에 도착하니 지원군의 책임일군은 위대한 수령님의 안부를 먼저 묻고 그이의 건강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모실로 뜯은 회색양말 세 켤레를 수령님께 올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일군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 전투가방에 넣고 최고사령부로 돌아왔다.

그가 그리도 기뻐던것은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2~3켤레의 면양말을 번갈아 신으셨는데 그러다보니 양말이 낡을대로 낡았던것이다.

그가 위대한 수령님께 임무수행정형을 보고드리고 전투가방에서 양말을 꺼내놓으며 사연을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것을 받아드시고 살펴보시더니 질이 참 좋다고, 신으면 발이 한결 따스하겠다고 기뻐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낡은 양말을 신으시던 수령님께 새 양말을 드리게 되었고 또 만족해하시니 일군의 마음은 더없이 흡족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동무가 걸음도 많이 걷고 밖에서 지내는 일도 잦은데 이 양말을 신으라고 하시는것이 아닌가.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일없다고 말씀드리고는 몇발자국 뒤로 물러서기까지 하였다.

그러는 그에게 수령님께서서는 인자하신 미소를 지으시더니 《나는 아무 양말이나 신어도 일없소. 그러니 동무가 이것을 신으라구.》라고 재차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안됩니다. 정말 이것만은 ...》 그 일군은 기겁하다싶이 하며 더욱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책벌이 따른다는것을 알지, 정 내말을 듣지 않으면 혼찌검을 내주겠소라고 《으름장》을 놓으신 다음 양말을 손에 쥐여주시면서 동무가 한켤레 신고 나머지는 나이가 어린 보초병들에게 주라고 이르시였다.

이리하여 그가 기쁜 마음으로 가져온 회색모실양말은 그들에게 차례지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여전히 낡은 양말을 신으신채 전선과 후방을 시찰하시게 되었다.

정녕 뜨거운 혁명적동지애, 그것은 우리 수령님과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의 천품이라 해야 할것이다.

18. 되돌려 보내신 닭과 닭알

조국해방전쟁시기 최고사령부가 자강도 만포에서 강동군 시족면 건지리(당시)로 옮겨온후에 있는 일이다.

이때 제일 애로가 밤잠을 잊어가시며 일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해드릴 음식감이 변변치 못한것이였다.

그리하여 여기에 신경을 쓰면서 자주 부락으로 오르내리던 한 일군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이틀 앞두고 검정닭 한마리와 닭알 한 꾸레미를 사들고왔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으시니 빨리 가보라는것이였다.

그가 무슨 일때문일가 생각하며 집무실에 들어서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서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더니 요즘 일이 바쁜 모양이라고 말머리를 떼신후 오늘 부락에 왜 내려갔됐는가고 물으시는것이였다.

그래서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었고 계속하여 4월 15일 아침에 그것을 쓰려고 한다는것까지 말씀드렸다.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윽하여 우리는 아직도 어려운 전쟁을 하고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생일을 다 생각할수 있느냐고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그 일군은 그래도 오늘 구해온것을 탄생일 아침에 식탁에 오르게 해달라고 절절히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러는 그에게 그러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따듯한 봄철이지.》라고 갑자기 계절이야기를 꺼내시였다.

어안이 빙빙해있는 그에게 수령님께서서는 의미있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봄철은 참으로 좋은 계절이지. 산에 들에 꽃이 피고 농민들은 밭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봄을 맞은 닭들은 병아리를 까고 ...》 그러시면서 동무가 사온 닭도 병아리를 칠수 있다고,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먹는것보다 되돌려주어 병아리를 치게 하면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였다.

검소한 식탁을 마주하시면서도 언제나 인민들의 밥상부터 생각하시는 수령님께서 왜 봄철이야기를 새삼스럽게 하시는지 그 뜻을 잘 알아들은 그였지만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닭 한마리, 닭알 몇개가 도대체 무엇인가고 생각하며 《장군님! 그래도 이번만은 ...》이라고 간절히 말씀올렸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를 달래시며 말씀하시였다.

《이제 전쟁만 끝나면 동무들의 그 성의를 달게 받아들이겠소.》

그리하여 닭과 닭알은 다시 고스란히 되돌려주게 되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 아침에는 다른 때와 다름없이 김치와 남새볶음만이 상에 오르게 되였다.

언제나 인민을 생각하시고 색다른것이 생겨도 인민에게 먼저 먹이시려 한평생을 다 바쳐 애쓰신 위대한 수령님.

지방에 대한 현지도도를 하시다가 뜻강냉이로 끼니를 에우시면서도 오히려 일군들을 위로하신 우리 수령님이시다.

진정 것처럼 소박하고 검소하게 생활하신 인민의 어버이, 우리 수령님의 인민적인 풍모를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을것이다.

19. 강사가 흘린 눈물

주체68(1979)년 7월 어느날 비내리는 베개봉숙영지앞으로 여러대의 승용차가 지나가고있었다.

멀어져가는 승용차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강사앞에 미끄러오던 한대의 차가 멎더니 꼭 달기였던 차창유리가 소리없이 내리워졌다.

그런데 글썽 오매에도 그리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내다보시는것이 아닌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산속에서 수고하는 강사동무로구만.》라고 하시며 차창유리를 더욱 활짝 내리시고 그의 손을 따듯이 잡아주시였다. 차에서 내리신 수령님께서는 강사에게 여기가 어디이며 베개봉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곳에 있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이때 뒤차에서 한 일군이 급히 우산을 받쳐들고와 어버이수령님께 받쳐드렸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보다 강사동무가 비를 더 맞습니다. 강사동무를 썩워주시오.》라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헤여지기 아쉬워하는 강사의 속마음을 헤아리시며 《오늘은 다른 일도 있고 날씨도 이렇게 나쁜데 내 다른 날에 꼭 들릴테니 그때 사진을 찍자구.》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래도 섭섭한 마음을 풀지 못하는것을 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막내딸을 달래시듯 《다음에 와서 꼭 사진을 찍자구!》 또다시 자애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비에 젖은 강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떠나시였다.

그후 강사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숙영지에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혹시 나라일에 바쁘신 수령님께서 불원간에 량강도를 쓰시면 어쩌랴 싶어 조바심까지 생겼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비오는 날 이름없는 한 강사와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었다. 그리고 바쁘신 현지지도의 길마저 뒤로 미루시고 좋은 날을 택하여 베개봉숙영지를 찾아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뜨거운 은정에 강사들은 쏟아지는 눈물을 건잡을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울면 사진이 잘 안돼. 웃으면서 찍자구.》라고 하시며 손수건을 꺼내시여 강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서 찍으라고 사진사에게 이르시었다.

사진을 찍고나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강사들의 옷차림을 유심히 살피신후 전번에 이 동무가 저렇게 입고 찬비를 맞았으니 얼마나 추웠겠는가고 하시며 량강도는 날씨도 찬데 당에서 백두산강사들에게 해입힌것처럼 도안의 모든 전적지강사들에게도 그렇게 해주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때로부터 얼마지난후 이곳 강사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영광의 사진과 함께 항일유격대원들이 입던 형식의 옷과 좋은 가족으로 지은 번쩍거리는 단화와 장화를 받아안고 또다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20. 보초병과 함께 찍은 사진

주체65(1976)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창건절에 있는 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느 한 군부대를 찾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군인들을 축하하시고 친아버이의 심정으로 그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돌보신 다음 부대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이때 멀지 않은 곳에 보초를 서는 병사가 있었다.

그는 환희에 휩싸인 광경을 보면서 부러움과 흥분을 억제할수 없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보위하는 영광을 지닌 자기 임무보다 더 중요한것이 어디에 있겠는가고 생각하면서 흥분된 감정을 눌러버리며 보초를 더욱 경각성있게 섰다.

어느덧 기념촬영이 끝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환호하는 군인들에게 답례하시며 걸음을 옮기시는것이였다.

보초를 서는 병사는 (이제는 떠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니 그 영광의 자리에 서지 못한것이 너무도 서운하여 눈물이 절로 솟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승용차쪽으로 가시는것이 아니라 수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며 천천히 보초소앞으로 오시는것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애로운 시선으로 보초병을 바라보시면서 《보초병동무의 자세가 참 위용이 있구만. 내가 사진을 찍어주겠소.》라고 말씀하시며 몸소 사진을 찍으시었다.

사진기에서 사진이 나오자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보초병동무의 사진이 잘되었구만.》하시며 커가는 아들의 모습을 대견해하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사진을 수원들에게 보여주시었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진기를 수원에게 넘겨주시며 뜻밖에도 《이젠 나와 둘이 찍자.》라고 하시는것이였다. 그러시고는 수원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높이 드시고 《우리 병사들이 제일 귀중합니다.》라고 하시면서 보초병의 곁으로 가시여 사진을 찍으시었다.

이름없는 한 병사를 위해 손수 사진까지 찍어주시고도 부족하여 이번에는 집체사진을 찍지 못한 아쉬움마저 풀어주시려고 함께 사진을 찍으시는 위대한 수령님. 손수 보초병의 옷깃도 여며주시고 모자도 고쳐씩워주시며

다정히 팔을 끼시고 《나도 오늘은 병사입니다.》라고 웃으시며 사진을 찍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친히 찍으신 여러장의 사진을 번지시며 한장은 고향에 보내고 한장은 중대에 두라고 하시며 얼굴이 크게 나온 사진을 골라드시고는 이 사진을 잘 건사했다가 이다음에 장가갈 때 처녀에게 주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기쁨을 고향에 전하고싶어하는 그의 속마음까지 헤아리시여 그후 휴가를 보내도록 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찍은 영광의 사진과 수령님께서 손수 찍어주신 사진을 보며 고향마을의 한 할머니는 《어디보자. 어버이수령님께서 창건이의 사진을 다 찍어주시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겠니.》하며 눈굽을 훔치는것이였다.

21. 한턱 내겠다고 하시며

가렬처절한 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0(1951)년 어느날 한 일군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으로부터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에 문건을 가져다주라는 임무를 받았다.

그곳에 도착하니 지원군의 책임일군은 위대한 수령님의 안부를 먼저 묻고 그이의 건강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모실로 뜯 회색양말 세 켤레를 수령님께 올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일군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 전투가방에 넣고 최고사령부로 돌아왔다.

그가 그리도 기뻐던것은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2~3컬레의 면양말을 번갈아 신으셨는데 그러다보니 양말이 낡을대로 낡았던것이다.

그가 위대한 수령님께 임무수행정형을 보고드리고 전투가방에서 양말을 꺼내놓으며 사연을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드시고 살펴보시더니 질이 참 좋다고, 신으면 발이 한결 따스하겠다고 기뻐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낡은 양말을 신으시던 수령님께 새 양말을 드리게 되었고 또 만족해하시니 일군의 마음은 더없이 흡족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동무가 걸음도 많이 걷고 밖에서 지내는 일도 잦은데 이 양말을 신으라고 하시는것이 아닌가.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일없다고 말씀드리고는 몇발자국 뒤로 물러서기까지 하였다.

그러는 그에게 수령님께서는 인자하신 미소를 지으시더니 《나는 아무 양말이나 신어도 일없소. 그러니 동무가 이것을 신으라구.》라고 재차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안됩니다. 정말 이것만은 ...》 그 일군은 기겁하다싶이 하며 더욱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책벌이 따른다는것을 알지, 정 내말을 듣지 않으면 혼찌검을 내주겠소라고 《으름장》을 놓으신 다음 양말을 손에 쥐여주시면서 동무가 한컬레 신고 나머지는 나이가 어린 보초병들에게 주라고 이르시였다.

이리하여 그가 기쁜 마음으로 가져온 회색모실양말은 그들에게 차례지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전히 낡은 양말을 신으신채 전선과 후방을 시찰하시게 되였다.

정녕 뜨거운 혁명적동지애, 그것은 우리 수령님과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의 천품이라 해야 할것이다.

22. 대원수와 보초병

주체81(1992)년 4월이었다.

이 력사의 봄에 우리 인민은 탄생 80돐을 맞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의 최고군사칭호를 삼가 드리였다.

일군들은 대원수칭호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 대원수복을 입으신 모습을
뵈고싶다고 매일같이 청을 드리였다.

하지만 수령님께서서는 매번 사양하시였다.

어느날 일군들은 자기들의 간절한 소청을 또다시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 수령님께서 대원수복을 입으신 모습을 력사문헌으로 후세에 남겨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저희들의 청을 꼭 들어주십시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더는 거절하실수 없어 촬영에 응하시였다.

주체81(1992)년 4월 22일이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원수복을 입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태양의 모습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원수별이 빛나는 군복차림을 하시니 그야말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위엄이 거룩하신 풍채와 참으로 잘 어울리였다.

영광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보초근무를 서고있던 군인파도 기념사진을 찍겠다고 하시였다.

《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가 되었는데 오늘은 대원수와 보초병이 함께 사진을 찍읍시다.》

그러시면서 보초근무까지 교대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진을 어디서 찍는것이 좋겠는가고 하시며 살구꽃이 활짝 핀곳에 자리를 잡으시고 보초병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대원수와 보초병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

군직으로 보면 대원수와 보초병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할수 있다.

허나 병사들을 제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영광의 그날에 보초병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것이다.

23. 인민을 위한 약속

우리 나라에서는 온천과 약수, 감탕 등 수많은 광천자원들이 개발되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바로 여기에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다.

주체43(1954)년 9월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평안북도의 어느 한 약수터에서 광천자원을 개발하고있던 일군을 부르시였다.

그 일군이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방으로 들어가니 책상위에 약수병들이 놓여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일군을 반가이 맞아주시고 그간 광천자원개발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으시였다. 그리고 온천과 약수를 탐사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리용하도록 하고 전국의 온천과 약수들을 탐사하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순간 그 일군은 하나의 온천과 약수라도 더 찾아내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리용하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뜨거운 은정에 깊이 머리를 숙였다.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말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결정으로 일제와 친일주구들의 소유였던 약수, 온천시설들을 국유화하도록 하시였고 이듬해 4월에는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결정으로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위한 료양소를 건설할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주체39(1950)년 10월에는 동창군 대동리에 있는 한줄기의 약수를 보시고 전쟁이 끝나면 이곳에 료양소를 지어주어야 하겠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주체42(1953)년 6월 어느날에는 전쟁의 중국적승리를 마련해가시는 그 분망하신 속에서도 광천자원을 개발리용할데 대하여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친히 광천조사대를 무어주시고 약수가 있을만한 곳도 지목해주시였다.그리하여 백운약수, 외귀약수, 관대약수, 지신약수를 비롯하여 수많은 약수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던것이다.

광천자원을 인민의 건강증진에 리용하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은 정녕 끝이 없으시였다.

온천과 약수가 있는 곳에 료양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주체49(1960)년 6월 3일 친히 온천료양소건설장을 찾으시였다.

료양소를 온수가 나오는 곳에서 떨어진 둔덕진 곳에 짓는것을 보신 수령님께서서는 온천료양소는 약수료양소와 달라서 온천물이 욕탕으로 저절로 흘러들게 온수터보다 낮은 곳에 지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고 건물의 층수와 향좌 그리고 욕조위치에 이르기까지 전문일군들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을 가르쳐주시였다.

참으로 온천과 약수가 있는 곳곳에 료양소들이 세워지고 병약수공장이 생겨나 인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의 은덕을 길이길이 전할것이다.

24. 그 눈은 고칠수 있을거요

주체49(1960)년 8월 평양에서는 전국천리마작업반선거자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 천리마작업반운동에 투신하다가 앞을 못보게 된 한 천리마기수가 참가하고있었다.

그는 대회에서 토론하는 영광을 지냈고 다음날에는 주석단에 나가앉게 되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가 토론한 오후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한 일꾼으로부터 전날에 한 그의 토론내용을 들으시고 주석단에 앉히자고 말씀하셨던것이다.

사회자의 호명이 있는 다음 그가 주석단을 향해 걸을 때 전체 참가자들이 일어서서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먼저 일어서시여 박수를 치셨기때문이었다.

주석단에 오른 그는 수령님앞에 이른것도 모르고 계속 걸음을 옮기려 하였다. 부축하던 동무가 귀뜸해서야 어버이수령님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북받치는 걱정을 참을수 없어 《수령님!》하고 목메인 소리를 하고는 참고참아오던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두손으로 그의 한손을 포근히 감싸주시었다. 수령님의 다른 손을 잡는다는것이 그만 헛갈려 팔소매를 잡자 그 손마저 끌어다 꼭 잡아주시며 앞을 못보면서도 많은 일을 했다고 치하해주시는것이 아닌가.

순간 더욱 어린애처럼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끼는 그의 두손을 꼭 잡으신채 힘있게 흔들어주신 아버이수령님께서는 불편하겠는데 이 동무를 앞에 앉히도록 하라고 이르시고 친히 자신의 가까이에 앉혀주시었다.

회의 중간휴식시간에 나가시면서도 그의 손을 꼭잡아 격려해주시고 그의 등을 가볍게 어루만져주시며 친근한 어조로 **《너무 근심할건 없소. 그 눈은 고칠수 있을거요.》**라고 하시며 희망을 안겨주시었다.

25. 다시 찾은 광명

언제나 락천적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하시며 대회 전기간 담당간호원을 붙여주시고 주석단에 오르내리기 불편하리라는것을 헤아려 친히 출입문가까이에 자리까지 정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

그는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한순간만이라도 뵈울수 있다면 한생을 눈감고 산대도 소원이 없을것 같았다.

회의 전기간 어버이수령님의 심중에서는 앞을 못보는 그가 떠나지 않았다. 보건일군들의 토론을 들으신 수령님께서서는 의료집단이 다 달라붙어서라도 그의 눈을 꼭 띄워주라고 하시였고 심지어 회의가 끝난 다음에도 또다시 의료일군들을 휴게실로 부르시여 거듭거듭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그후 그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승용차를 타고 평양에 올라와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의료일군들의 지극한 정성에 의하여 마침내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1962년 4월 15일 붕대를 풀고 앞을 보게 되였다.

그는 너무도 크나큰 감격과 가슴벅찬 충격으로 하여 저도 모르게 자리를 차고 일어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를 목이메여 부르고 또 불렀다.

그와 함께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러르던 의료일군들과 주위사람들도 마치 수령님께서 인자하신 영상으로 광명을 다시 찾은 그를 축하하시며 정겹게 굽어보고계시는것 같아 흐르는 눈물을 억제할수 없었다.

26. 망상제가 되시여

항일혁명투사 마동희동지의 어머니 장길부녀사가 서거하였을 때인 주체63(1974)년 2월이었다.

장례를 준비하던 일군들은 그만 딱한 사정에 부닥치게 되었다.

그것은 장길부어머니의 상제가 없는것이였다.

장길부어머니로 말하면 조국해방의 항일성전에 아들, 딸, 며느리를 모두 바치고 혈혈단신이 된 몸이였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자식들이 상제가 되어 조객들을 맞이하고 장례를 주관하는것이 조상대대의 풍습인데 어머니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도가 서지 않았다.

(예로부터 세상을 떠나 땅속에 묻히게 될 때 상제가 없는것을 설음중의 설음이라고 하였는데 어머니가 바로 그 설음을 겪게 되는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던 일군들은 토의끝에 위대한 수령님께 사연을 말씀드렸다.

《아버이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국장으로 하게 되는 장길부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누가 상제가 되어 조객들을 맞이해야 되겠는지 자식들이 없으니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

일꾼들의 말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창가로 다가가시여 어머니가 100살까지는 앉아있어야 했을것인데 일찌기 세상을 떠났다고 못내 애석해하시였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이 90살이면 남의 나이까지 산다고 했다. 그런데 장길부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보살펴주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어머니가 91살에 사망한것이 가슴이 아프시여 오히려 일찌기 세상을 떠났다고 하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내가 만상제가 되고 유격대출신 장령들이 상제가 되여 어머니의 장례를 잘 치르어주자고 하시였다.

그 말씀을 들은 일꾼이 수령님께 《수령님, 지금까지 력사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자 수령님께서서는 력사에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다음날 장길부녀사의 령구를 찾아온 조객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였다.

혈혈단신이라던 어머니가 령구옆에 시누런 왕별을 단 다섯 《아들》과 흰 상복을 입은 다섯 《며느리》들을 거느리고 고이 누워있는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다는 알지 못하였다. 장길부녀사의 《만상제》가 바로 위대한 인간이신 우리 수령님이시라는것을...

27. 집난이의 고향방문

주체55(1966)년 8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가까이 모시고있는 한 녀성군인은 그의 직속상관의 부름을 받았다.

찾아가니 직속상관은 전날 어버이수령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동무의 고향이 신의주인데 이번에 그곳에 가면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들을 만나보게 하자고 말씀하셨다는것을 전해주는것이였다.

그는 너무도 뜻밖이고 감격이 커서 한동안 움직일수 없었다.

그는 몇년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군사복무를 시작한지 두해가 되던 때 문득 군대에 나간 딸이 보고싶다고 어머니가 찾아온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신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를 부르시여 어머니를 모시고 평양구경도 하고 하루밤 같이 자면서 모녀의 정을 나누라고 따뜻이 이르시였다.

그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자 수령님께서 《래일 점심식사는 누구나 좋아하는 국수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 래일 어머니를 꼭 모시고와야 하겠소. 시원한 평양랭면을 대접하면 어머니가 좋아할게요.》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아무리 소탈하시고 인민들과 격식이 없이 지내신다 한들 어찌 그렇게 할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다를가 딸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펄쩍 놀라면서 그게 무슨 소린가, 만백성이 높이 우러르는 어버이수령님과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하겠는가고 하면서 누가 붙잡을 새도 없이 신의주로 내려가고말았다.

이 사실을 들으시고 더없이 섭섭해하신분은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를 부르시여 노하신 어조로 촌사람이면 어떻고 도시사람이면 어떻단말이나, 딸이 보고싶어 모처럼 찾아온 어머니인데 내가 식사랑 같이 하면서 지방형편도 알아보면 좀 좋으냐, 우정이라도 지방에 내려가서 인민들과 이야기를 나눌라니 찾아온 어머니를 그렇게 돌려보내면 어떻게 하는가고 나무람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딸한테 왔던 동무 어머니가 한번이라도 함께 식사를 했으면 얼마나 기뻐하였겠는가고, 어머니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면 동무도 나도 오죽이나 좋은가고 몹시 서운해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그 다심하신 은정에 뜨거운 눈물을 쏟고있는 그의 귀전에 수령님의 자애로운 음성은 계속 이어졌다. 어머니가 아무리 고집을 부리여도 모시고왔어야 할걸 그랬다고, 물론 어머니가 나한테 나서는것이 썩스러우니까 그렇게 행동했을것이다, 그러나 인민의 수령이 인민을 만나는거야 얼마나 좋은 일이나, 참 일이 맹랑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곧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라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그가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올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기 어머니를 존경할줄 모르는 사람은 자식된 도리를 다할수 없다, 애국주의도 하늘에서

떨어지는것이 아니다, 자기 부모,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할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 마을, 자기 고향을 사랑할줄 알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가슴속깊이 간직할수 있다, 그런것만큼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 부모, 일가친척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런 일이 있었지도 몇년이 지난 지금 본인자신도 그일을 잊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때 일을 잊지 않으시고 신의주일대를 현지지도하시는 기회에 그를 집에 다녀오게 하시려는것이였다.

신의주에 도착한 날 저녁 그를 부르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자신께서 비단섬으로 떠나신후에 따로 할일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는 무슨 중요한 과업을 주실가 궁금해하는데 수령님께서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그 일이란 〈집난이〉의 고향방문이야. 우리가 동무 고향 가까이에 와있는데 이런 기회에 동무를 집에 보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것이 아닌가.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종종 그를 《집난이》라는 애칭으로 부르시였던것이다.

그는 그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시울이 젖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번에도 그는 집에는 안가도 되니 어버이수령님을 따라 비단섬에 가겠다고 어린애처럼 말씀드렸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옆의 일군에게 엄하게 당부하시고 집에 갔다가 숨차게 오느라고 하지 말고 어머니품에서 하루밤 푹 자고와야 하겠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일군에게 오래간만에 《집난이》를 집에 보내는데 그냥 보낼수야 없지 않는가고 하시며 손수 《집난이》의 나들이준비까지 하나하나 보살펴주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조직해주신 자동차에 여러가지 식료품을 싣고 불쑥 집에 나타난 그를 맞이한 식구들의 기쁨은 하늘에 닿는듯 하였다.

지금도 이곳 사람들은 그때의 사실을 하나의 전설처럼 이야기하며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덕망에 대해 잊지 못하고있다.

28.교육자의 수고를 헤아려 주시며

주체64(1975)년 1월 26일 평안남도 룡강군 옥도협동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애원중학교 교장을 부르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그가 도착하자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아, 교장선생이 왔구만, 반갑소.》라고 하시며 이곳 관리일군들과 농장원들에게 농사이야기는 이만하고 이제는 교장선생과 이야기를 좀 나누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학교실정을 보고드리려 하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학교실정을 잘 알고있다고 하시면서 따뜻한 어조로 그의 고향과 자식에 대해서와 교원생활은 얼마나 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그가 23년동안 했다고 말씀드리자 수령님께서는 매우 대견해하시며 **《23년, 23년…》** 이라고 몇번이나 되뇌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23년이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먼지인들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순간 그는 교육자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했을뿐인데 것처럼 수고를 헤아려주시니 너무도 황송하여 몸둘바를 몰랐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후대교육사업에서 강령적의의를 가지는 말씀을 하시면서 후대를 교양하는 사업은 아주 힘든 일이라고, 그래서 교원은 직업이 아니라 혁명가라고 하는것이라고, 후대교양에서 중요한것은 그들이 일하기를 좋아하게 하는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 점심시간도 퍼그나 지났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좀처럼 일어서실념을 하지 않으시고 교장선생에 대하여, 학교사업에 대하여 오래도록 말씀하시고나서 **《교장선생, 학교에 돌아가면 교원, 학생들에게 나의 인사를 전해주시오.》** 라고 이르는것이였다.

그후 교장선생은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대로 학생교양사업과 학교를 더 잘 꾸리는 일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그러던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학교에 찾아오시었다.

수령님께서는 수수한 농촌리의 학교를 잘 꾸린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교장선생에게 23년동안 정말 일을 많이 한 공로가 있는 동무라고 과분한 치하를 해주시었다.

이처럼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촌마을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수수한 이 학교를 전국의 본보기단위로 내세워주시고 그를 일을 많이 한 교장이라고, 공로로 보아 로력영웅칭호를 주어도 아깝지 않겠다고 분에 넘치는 치하를 하시었다.

그후 그 교장선생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5차회의에 참가하여 토론하는 영광을 지니였고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게 되었으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까지 선거되었다.

한 평범한 농촌마을 교육자가 국사를 의논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까지 되는 나라, 교육사업을 중시하며 교육자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는 위대한 수령을 모신 나라는 오직 우리 나라밖에 없다.

29. 친아버지가 되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혁명동지들이 남기고 간 유자녀들을 돌보는것을 도덕의리로 여기시였다.

해방후 여기저기에 흩어져있던 혁명가유자녀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시여 평양으로 데려오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만경대가까이에 혁명학원을 세워 그들의 친아버지가 되시였다.

하기에 전쟁이 일어나자 학원원아들은 아버지의 그 은정에 보답하기 위해 남먼저 전선에 탄원하였다.

이것을 못내 대견하게 여기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곁에서 군사복무를 하도록 해주시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최고사령부가 고산진에 있을 때의 일이다.

북방의 맵짠 바람이 온몸에 스며드는 어느날 새벽 적비행기들이 갑자기 까마귀떼처럼 날아들었다.

그때 한 원아가 보초소를 뜨지 않고 긴장하게 적비행기들의 동태를 살피고있었다.

이것을 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급히 문을 열고나오시더니 그의 팔소매를 잡아당기시면서 적비행기들이 달려들 때에는 방공호로 들어가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었다.

하지만 그는 최고사령부를 호위하는 친위전사라는 한가지 생각으로 설사 죽는다고 해도 보초소를 떠나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렸다.

이러한 그의 마음을 헤아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품에 안아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듯 그를 꼭 껴안으시고 안전한곳으로 들어가시는것이였다.

일이 이렇게 되고보니 어버이수령님의 안녕을 지켜드리는 임무를 지닌 그가 도리어 수령님의 보호를 받은셈이 되고말았다.

얼마후 적기들의 동음이 사라지고 기관총소리도 들리지 않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적기들이 다시 달려들터이니 잘 살피다가 제때에 은폐해야 한다고 타이르시였다.

항일전의 불길속에서 늘 어린 대원들을 품에 안아 보살펴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에도 만경대혁명학원에서 탄원한 원아들을 늘 병아리처럼 보살펴주고 보호해주시였다.

어찌 그뿐이라.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준엄한 전쟁시기이지만 그들을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하도록 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푸시였다.

그때에도 그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안녕을 지켜드려야 할 호위전사가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을 때에 편안히 공부하러 간다는것은 도저히 생각할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선뜻 그 《명령》을 접수하러 하지 않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모두 두말없이 조직한대로 하라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사랑에 의하여 적포성을 등뒤에 들으며 다른 나라로 공부하러 가게 되었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언제나 혁명전사들이 남기고 간 유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시여 그들을 보살펴주시고 우리 혁명의 핵심으로, 나라의 유능한 인재로 키워주시였다.